

에코시티 내 초교 추가 설립 재추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주민 요구에 따라

내달 초 ‘미산초’ 에코시티 이전·신설 찬반 투표

전주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인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추가 설립이 재추진되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에코시티 내 제3의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선 에코시티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가 2개 교에 불과해 ‘과밀 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에코

시티 데시앙 15블록(748가구)의 초등학교 학생 240여명이 약 1km 가량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에 배정됐다.

특히 앞으로 3~4년 내 더샵 16블록(576가구), 한양수자인 디에스틴(268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에코시티 반경 1km 인근의 작은학교인 미산초를 어울림학교 분교장으로 바꾸고 에코시티 내 제3 초등학교 부지에 미산초를 신

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학생의 분교·분교 선택권 존중,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최첨단 시설 구비, 재정 지원금 10년간 총 6억원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폐교나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에코 지역의 과대 학교 분리와 작은학교의 장점을 유지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본격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7월 초 전주 미산초의 에코시티 이전·신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학교 이전을 위해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투표에 앞서 1·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나올 경우 곧바로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50%를 넘으면 36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2026년 하반기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8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서거석 교육감이 오는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찾아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감토크를 시작했다. 11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지역 교직원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전북태권도고 설립 추진 힘 모아달라”

서거석 교육감, ‘공감토크’ 첫 일정으로 무주 방문

지역 교육현안 논의… 무주교육지원청 등 찾아 격려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순회… 교육가족들과 소통

서거석 교육감이 오는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찾아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감토크를 시작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첫 일정으로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지역 교직원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공감토크는 서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

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이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참석자들과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관사 건립,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장은성 기자

이후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과 무주중학교(교장 김준배)를 찾아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승기 교육장을 만난 자리에서 무주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태권시티, 무주’와 전북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마련하고자 공감토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학력신장, 수업중심 학교 문화 조성, AI미래교실 구축 등 전북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무주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신청하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7월 22일~8월 8일 진행… 15~22일 신청

전북대·원광대 등 9개 대학 23개 강좌에 460명 참여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전주·군산·익산시 등 3개 시를 제외한 교육도약지구 고등학교에서 운영된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전주·군산·익산 지역을 교육도약지구로 연결하고, 그 외의 11개 시·군은 교육

도약지구로 연결 지원해왔다.

올해 참여 대학은 군산대·전남대·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호남대 등으로 총 23개 강좌에 4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대와 조선대까지 참여 대학 범위를 확대했다.

수업은 강좌별로 3일간 총 2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5~22일 전북교육청 공동교

육과정 플랫폼(<https://jpecredit.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찾아가는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은 교육도약지역의 단위 학교에 저점학교를 마련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까지 진행되는 ‘고교·대학 연계 1학기 주말강좌’에 4개 대학에서 28개 강좌를 개설, 43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체급 제한 ‘無’… 새로운 격투형 e스포츠 대회 열린다

‘KTA 버추얼 태권도 챌린지’ 15일 우석대서… 부별 토너먼트로

2024 KTA 버추얼 태권도 챌린지 시리즈(대통령기)가 오는 15일부터 2일간 우석대학교 태권도 교육관에서 열린다.

11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국내 버추얼 태권도 경기의 보급과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태권도 종목의 e스포츠 올림픽 게임 종목 채택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가 개최 원년인 ‘2024 KTA 버추얼 태권도 챌린지 시리즈 대회’는 상반기 3개 대회(3~6월)와 하반기 3개 대회(7~11월) 등 총 6개 대회가 진행된다.

우석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전 다승제 또는 단회전 방식이 적용되며, 부별 토너먼트로 실시된다. 송남정 교수(태권도학과)는 “몸에

동작 센서와 VR 장비 등을 착용하고 가로세로 3m의 개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가상 겨투기를 치르는 새로운 격투형 e스포츠로 체급 제한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컴퓨터 그래픽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버추얼 태권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챌린지 대회는 각 대회 성격에 따라 랭킹 점수가 부여되며, ‘2024 KTA 버추얼 태권도 최종 선발전’ 출전권이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초중고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인터넷통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초·중·고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가구당 1회선 지원되며,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7,0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1만2,000명에게 19억7,000여만 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으로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 학생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교권침해 논란

초등생 대상 ‘임시조치’ 요청

교육당국이 전주 한 초등학교서 교권침해 행동으로 논란이 된 A군에 대한 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은 초등학생 3학년 A군에 대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요청에 따라 A군에 대한 부모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조치가 청구됐을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주거 피격 등 격리,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꼼꼼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대, 지역인재 7급 선발 ‘거점국립대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합격자 175명 중 전북대 추천 9명 합격 국시·자격증 대비 돕는 ‘인재등용관’ 지원 효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4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거점국립대 가운데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대 인재등용관(관장 이희철)에 따르면 전국 합격자 175명 가운데 전북대가 추천한 9명(행정직 7명, 기술직 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로는 박재연(작물생명과학과, 20) 학생을 비롯해 송유호(경영학부, 15), 이기현(영어교육과, 16), 이지연(중어중문학과, 19), 정지수(바이오메디컬공학부, 19), 정지인(행정학과, 19), 채민진(국어교육과, 19), 최현정(행정학과, 17), 황윤택(회계학과, 18) 학생 등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함으로써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총장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

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면접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이에 전북대 인재등용관에서는 각종 국가시험이나 자격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인재등용관은 공무원 5급 및 7급 반, 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반, 교원임용고시반, 변호사반, 공기업 반, 법학전문대학원반, 언론고시반, 전문자격(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반 등을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500석이 넘는 열람실과 각종 시험 대비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우수인재 양성의 산실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근무를 한 후, 근무성적평가 등을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장은성 기자

“교육수요자 체감 적극행정 실현”

전북자치도교육청, ‘제10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5층 회의실에서 ‘제10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내·외부위원 10명이 참석,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 방향으로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는 물론,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점과제로 △존중받는 교원 △전북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및 정보 업무경감



을 위한 디지털 튜터 확대 △교원임용 시험 공개 설명회 및 상담장구 운영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ADHD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선정했다.

이희철 감사관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4년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개교 60주년 기념 ‘JJ SUPERSTAR CAMP’

내달 29~31일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서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7월 29~31일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JJ SUPERSTAR CAMP’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JJ SUPERSTAR CAMP’는 전국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WAKE UP!’이라는 주제로 침체돼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위러브(Welove)의 박은총 대표와 이성형 목사, 랍하는 선교사이신 서중현 선교사, 원디사이플 김성경 전도사, 페이스처치 김진교 선교사, 유튜브 반개탄 TV의 임우현 목사가 강사로 동참하며, 전주대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로 구성된 리스트 워십(Less Worship)이 예배를 섬기며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선교봉사처 한병수 처장(대학교회 담임목사)은 “이번 ‘JJ SUPERSTAR CAMP’를 통해 한국 교회 청소년들이 잠들어 있는 신앙의 열정을 깨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는 전북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국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포스터에 참가 신청 QR코드를 인식하거나 URL(<https://form.naver.com/response/VjvwD0tV-7CZ2E0nK-tfw>) 링크로 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사전 접수 시 30% 할인된 금액(5만4,600원, 미지급 교회 무료)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220-2103 또는 063-220-314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